

제 3 차 경 기 문 화 포 럼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15:00~18:00

장소 :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주최 : 경기문화재단

진행 순서

시간	구분	진행 내용
14:30~ 15:00	등록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5:00~ 15:20	개회식	- 진행 : 조광연(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 인사말 : 진종덕(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5:20~ 16:20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양훈도(언론인)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 문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노명우(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 ;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 최지연(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16:20~ 16:40	휴식	Coffee Break
16:40~ 17:20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우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 조선미(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문화의제 위원) - 이상범(극단 기린 대표) - 이병관(경기도 문화정책과장)
17:20~ 18:00	종합토론	종합토론

목 차

경기도의 문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1
노명우(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	13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31
최지연(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경기도의 문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1. 불가능한 작전 - '문화를 정의하고 측정하라'

문화만큼이나 논란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문화란 영어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 중의 하나라는 푸념까지 등장했겠는가. 문화를 정의할 수 없다는 월리엄스의 의견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화는 누가 정의하는가에 따라 의연과 내포가 달라지는 무정형의 괴물과도 같다. 문화에 관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분과학문의 전제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 문화 개념 속으로 포함시키는 현실이 달라진다. 게다가 동일한 분과학문의 전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혹은 민주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무엇이 문화인가에 대한 설명 또한 달라진다. 그래서 문화는 가장 정의하기 까다롭고, 합의가 거의 부재한 개념이자,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다.

문화정책의 곤경은 바로 이 때문에 생겨난다. 문화정책은 문화에 대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대답은 사실 대답이 아니다. 정책의 대상, 즉 문화가 무엇인지는 정책입안자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화에 대한 정의는 사실 학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책적인 논쟁이다. 문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의연과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논쟁처럼 보이는 문화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이 논쟁을 회피하고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면, 문화정책의 대상과 영역은 관습의 힘에, 때로는 정치적 편의 관계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은 존재하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논쟁을 회피한다면 문화정책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최고 결정권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회정책과 비교해볼 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즉 이른바 우선 순위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1

현실의 정책영역에서 문화정책의 영역과 대상은 문화가 아닌 다른 영역, 즉 정치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문화정책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이른바 경제정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불가피하게 문화와 문화가 아닌 것, 즉 문화와 사회 사이의 관계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문화가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문화정책의 적극적 의미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화를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한 난점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문화는 그 특성상 질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반면 지표는 질적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양적인 속성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문화에 대한 정의라는 난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질적인 속성을 지닌 문화의 영역을 질적 속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양적 범주로 변환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양적 범주로 전화될 수 없는 문화의 영역이 양적 범주로 전환될 수 없는 문화 영역보다 많다는 점이다. 또한 양적 범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적 범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다. 철학적 난관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난관도 존재하는 것이다.

2.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는 21세기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 문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지역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많은 지방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를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문화정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화의 발전을 꾀하고자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의 속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화는 눈에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원을 투입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경제 영역과는 달리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문화는 중장기적 관점에 따른 꾸준한 투자가 이뤄질 때만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문화는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축적된 문화적 역량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지력은 그들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창조성의 총량에 기인한다. 문화는 분명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창조성의 원천이다. 산업중심의 사회에서는 근면성이 중요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자본주의는 물질적 상품 생산에 기초를 둔 '고전적' 단계로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이행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른바 문화적 자본주의(cultural capitalism)이자 연성자본주의(soft capitalism)로 변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는 21세기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 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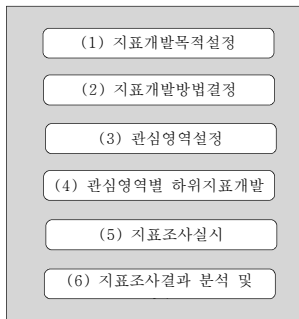
문화는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문화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 시민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르면 사람들은 경제성장에만 만족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욕구는 경제에서 문화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시민들의 관심은 '삶의 질'을 향한다.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문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경제는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한다. 경제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경제적 발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는 발전의 궁극적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지 않는다. 문화는 사람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발전의 목적에 대해 대답을 내려주는 영역이다. 경제가 인간 생존의 최소의 조건을 해결해준다면, 문화는 인간 생존의 궁극적 목적, 즉 삶의 의미와 삶의 완성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기에 문화에 대한 관심 없이 '삶의 질'을 논할 수 없다.

이렇듯 문화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문화를 다루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아직까지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으며, 문화정책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에서 문화정책은 경제정책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된다. 눈에 띄는 정책결과를 원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문화정책이란 '돈 먹는 하마'로만 보인다.

문화지표체계개발은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의 의미를 지니기에 문화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문화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에 대한 객관적 측정의 부재가 기존 문화정책의 아킬레스건이었다면, 문화지표는 문화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정책의 달레마를 해결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문화지표는 문화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문화생활 실태와 문화자원을 측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실태를 가늠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문화지표는 문화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화지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규범적 기능도 수행한다. 문화지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향과 실현 방향을 구상하도록 도우며, 간과하기 쉬운 세부적 사항들 까지도 하위 지표의 목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문화지표는 문화와 관련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지표화 되면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의 모습과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 지표개발절차

3. 경기도 문화지표체계의 원리

경기도 문화지표 체계연구 2007에서는 우리는 지표 대상인 문화를 이중적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문화는 영역의 범주이자 동시에 가치 지향적 범주라는 점을 문화지표체계 개발의 원칙으로 설정했다. 가치 지향적 범주로의 문화 개념을 우리는 '원리로서의 문화'라 정의했다.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의 창의성(Creativity)이 발휘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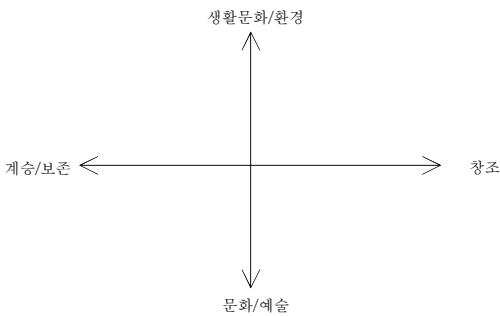
인간의 역능을 의미한다. 또한 원리로서의 문화는 경제중심주의적 세계관, 노동중심주의적 세계관, 경쟁 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주의적 세계관을 지지한다. 경제주의적 세계관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원리로서의 문화'는 상생의 논리, 제압보다는 설득, 효율보다는 공감을 존중한다. '원리로서의 문화'는 인간 사이의 공동선(The Public Good)의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또한 우리는 문화를 영역으로 파악하되, 문화를 문화예술이라는 협의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포함하여 문화 환경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표체계 안으로 수렴하였다. 즉 우리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문화 개념을 채택했다. 하지만 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하되, 양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과 범주에 국한하였다.

문화지표 체계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문화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문화적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별한다. 문화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규범적 판단이 아니라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지표(descriptive Indicator)이다. 또한 우리는 기술적 지표뿐만 아니라 규범적 지표(normative Indicator)를 개발하였는데, 규범적 지표는 원리로서의 문화가 지니는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의 종류	지표 개발 목표	
문화의 발전	현황 파악 descriptive Indicator/quantity	협의의 문화
		광의의 문화
문화적 발전	규범적 파악/정책목표 normative Indicator/quality	문화와 정보화
		문화와 형평성
		문화와 창조성 확산
		문화와 개방성

<표 1> 문화 개념 조직화를 위한 기본 틀



<그림 2> 문화지표 분류 개념

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할 경우 문화지표 대상 범주는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표 대상 중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은 범주가 확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확장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광의의 문화 개념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면, 뜻은 좋으나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적 문화지표 체계가 되기 십상이다. 광의의 문화 개념을 토대로 문화지표체계를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광의의 문화개념에 대한 매트릭스를 제시한 다음,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문화 범주(Quantity)와 정성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문화범주(Quality)를 구별하여 조작가능하고 측정가능한 평가의 대상을 확정하였다.

정량적 지표는 정량적 수치에 따라 객관적인 수치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정성적 지표는 정성적으로 판단된 정성지표(ethnography)와 정성적 대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한 정성적 지표(심리적 지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문화 영역을 조직화하기 위해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성적 지표를 문화 영역 범주에서 제외해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문화지표 체계를 이원화하였다. 하나는 기술적 지표로 기술적 지표에서는 문화유산의 전통을 파악하는 문화유산지표, 장르/영역적 의미의 문화를 지표대상의 삼는 문화장르지표와 가장 폭 넓은 의미의 문화를 지표 대상으로 삼는 문화환경지표로 구분하였다. 기술적

지표이외에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규범적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규범적 지표체계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창조성 지표, 개방/관용성 지표 그리고 문화 정보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지표세분	비고
지표구분	문화유산지표	문화유산지표	과거의 문화
	문화장르지표	문학지표	협의의 문화
		시각예술지표	
		음악예술지표	
		무용지표	
		대중문화/문화산업지표	
		방송미디어산업지표	
	문화환경지표	문화기반시설지표	광의의 문화
		문화환경지표	
		문화향수지표	

<표 2> 경기 문화지표 2007 분류체계(기술적 지표)

최고정책목표	하위정책목표	문화지표
문화적 발전	문화적 창조성 개발	창조성 지표
	개방적인 품도 조성	개방성/관용성 지표
	문화 정보화 제고	문화 정보화 지표

<표 3> 정책목표별 문화지표(규범적 지표)

4. 지표로 살펴본 경기도의 문화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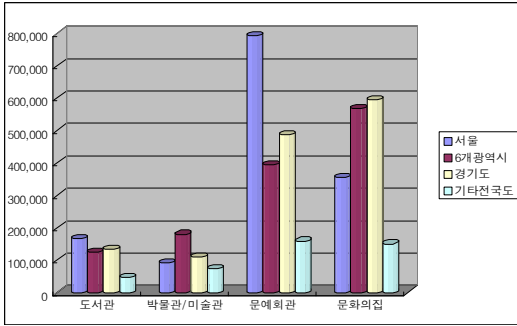
문화정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에 지역특성 파악은 문화정책의 수립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문화지표체계를 개발한 목적은 바로 지표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상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정책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정책이 실제적인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이다.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7

경기도는 타도와 비교해볼 때 서울을 중심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경기도의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형상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사이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오히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서울과 활발한 교류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신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 경기도의 극단적 분할상황 때문에 각 지역 거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매우 상이하다. 그렇기에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부의 차이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 상황에 접근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기도의 문화 상황을 타 시군부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 경기도의 문화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내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경기도의 문화 상황 측정을 위해 우리는 문화기반과 관련된 기초자료는 기존에 수집된 통계자료(경기문화재단, 2006년 미술관 운영실태 조사자료, 2007년 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자료, 2005년, 2006년, 도서관 현황자료, 2006. 문예회관 현황, 2006. 문화의 집 현황)를 활용하였다.

경기도를 서울, 6개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규모를 지니고 있는 매우 거대한 지역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기에, 문화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재정적 잠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내에서의 경기도의 문화적 위상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위상은 문화예술관련 지표상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중 7.2%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중요 문화기반 시설 중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타시군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구비되어 있다. 전국 문예회관의 14.7%가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는 도시공원 조성에서도 타도와 비교해 볼 때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문화시설현황비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기도는 서울, 6개 광역시와 비교해 봐도 문화기반시설의 측면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림 3> 문화시설현황비교(2006 경기도 문화지표조사)

	시·군·구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현황	서울	62	113	13	29
	6개광역시	82	57	26	18
	경기도	80	98	22	18
	기타전국도	302	189	89	94
1개 기관당 담당 인구	서울	166,081	91,124	792,077	355,069
	6개광역시	124,883	179,656	393,862	568,912
	경기도	133,715	109,155	486,237	594,290
	기타전국도	46,755	74,709	158,652	150,213

<표 4> 문화시설현황비교(2006 경기도 문화지표조사)

지표항목	경기도	전국	비중(%)
국가지정 문화재 수('07)	217개	3,013개	7.2
문예회관 수('05)	22개	150개	14.7
공공도서관 수('06)	98개관	561개관	17.5
도시공원조성('05)	5,904만m ²	3억126만m ²	19.6

<표 5> 문화관련 경기도 주요 지표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9

경기도에서 기타 문화기반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화기반 시설 중 공연시설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1997년 7개에 불과했던 종합공연장은 2005년 무려 49개가 되었으며, 1997년에 105개였던 영화관은 2005년에는 326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경기도는 타시군부와 비교할 때 문화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월등한 수준을 자랑한다. 지표상으로 경기도는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예술단체 수, 공연행사 수, 지역 축제 수의 면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화시설 이용도는 대조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문화시설방문횟수,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 횟수,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도내 지역축제 참여율 등에서 매우 저조한 전국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저조한 문화시설 이용도는 서울 주변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이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격	공연시설			전시			문화 복지시설			기타시설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회관	시군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 원	전수 회관	
1997	7	15	105	9	18	27	89		30	1	4	
2001	11	22	142	21	12	24	138	13	31	1	6	
2005	49	23	326	25	6	22	114	18	32	2	10	

<표 6> 경기도 문화시설 현황추이(2001, 2005 경기도 통계연보를 토대로 재구성)

항 목	순 위	비 고
도내 문화시설 방문횟수	14위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횟수	13위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13위	
도내 지역축제 참여율	15위	최하위
도내 지역축제 참여의향	12위	
문화예술행사 관람회수	3위	-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관람

<표 7> 문화향수 실태 관련 순위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5. 여전히 남은 문제들

2007년에 시도된 경기도 지표조사는 매우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지표개발 과정에서 부딪힌 이중의 난관 때문이다. 우리는 개발된 지표체계에 따라 문화현실을 측정하려면, 지표체계가 요구하는 통계가 부족한 한계에 빠졌고, 동시에 현존하는 통계만을 다룰 경우 의미 있는 지표체계 자체의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한계에 봉착했다.

경기도의 문화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예상보다 부족했다. 또한 현존 통계자료의 정확성도 신뢰하기 힘들었다. 잘못된 자료가 여과 없이 수집되어 있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는 정확한 분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불완전한 통계자료도 많았다.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졌다. 조사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이 양적 자료들로, 이러한 자료를 생산한 문화시설 또는 조직의 환경, 맥락 또는 운영의 과정,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질적 자료가 부족했다. 통계자료의 부족과 불충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문화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문화통계센터의 건립이 필요할 것이다.

통계자료의 부족과 불충분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지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심각했다. 우리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최고 목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표체계를 개발해야 했다는 한계로부터 출발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지표는 기술적 성격과 동시에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기술적 성격을 지닌 문화지표 개발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의 양적 범주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와 관련된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라면, 규범적 지표 개발 위해서는 경기도의 문화발전 도정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규범적 지표는 경기도의 문화발전 목표가 명확해야만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지표체계연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경기 문화비전 2020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훨씬 더 두 작업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창출되었을 것이다.

규범적 지표, 그리고 규범적 지표의 토대가 되는 문화비전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표개발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활발한 토론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문화포럼은 바로 이

런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표는 문화정책을 위한 도구이지, 지표를 통한 현실 측정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다. 아무리 기법 상으로 완벽을 꾀하고, 많은 돈을 쏟아 부어 현실을 지표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문화는 그 특성상 완벽하게 지표로 파악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문화는 바로 개개인,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연대를 가능하게 한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문화현실을 지표로 파악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통계작업만으로 끝은 아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답을 내릴 수 없다면, 경기문화지표는 무수히 많은 지표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지표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도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규범적 지표'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도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밀착하는 문화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문화지표가 의미 없는 통계치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혹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인가, 경기도 문화지표의 불안한 미래는 여전히 남은 문제이다.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1. 들어가며

필자는 지난 10월, 경기문화재단 10주년기념 심포지엄에서 “모두를 위한 문화, 그들에 의한 문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경기도 향유자를 위한 문화정책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모두를 위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그들만의 문화’를 돋우는 방식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민주주의의 미덕을 취하여 적극적인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¹⁾ 당시 경기도의 문화향유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주로 인용한 것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국민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하는 <문예연감>이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현재 기초예술의 현장 활동과 향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자료만으로 지역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²⁾

이런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이 내놓은 <경기도민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는 지역단위의 문화향수실태조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독자적인 중·장기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9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경기도민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1998년, 2002년도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된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와 연계해서 문화를 구성하였고, 경기도의 특수성과

- 1) 모두를 위한 문화, 그들만의 문화 (양효석, 경기문화재단10주년기념심포지엄 발제문, 2007)
- 2)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2006년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2006년 조사의 경우, 표본의 크기를 3,000명으로 하였고 그중 경기도민 표본 수는 572명으로 표본크기가 작아서 시도별 조사결과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13

문화예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문항을 일정부분 보완하여 전국 단위와의 비교 및 과거 조사내용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조사는 유효표본수 1,950명, 표본오차 ±2.2%, 95%신뢰구간으로 2002년도의 조사대상 1,200명보다 표본수를 대폭 늘리는 등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경기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현상적 진단을 통해 경기도 문화가 처해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문화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기도 문화환경의 특성

경기도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은 경기도의 문화적·지리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국토의 10.1%를 차지하고 국민의 22.3%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31개의 시군은 도시와 산간, 해안, 평야지방이 골고루 섞여있고 북쪽은 군사분계선으로 가로막혀 있다. 경기(京畿)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지역이라는 의미로 수도권이며, 도민의 80%가 외지인 출신으로 향토문화에 대한 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약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경기도민의 정서적 문화적 특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있지만, 도시와 농촌의 정서가 다르고,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여기에 남북 대치상황에 따른 군부대와 주한 미군부대의 주둔,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문화적 향유계층이 존재한다.

3) 본래 ‘京’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畿’는 ‘천자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백리 이내의 땅’을 의미한다.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던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의 유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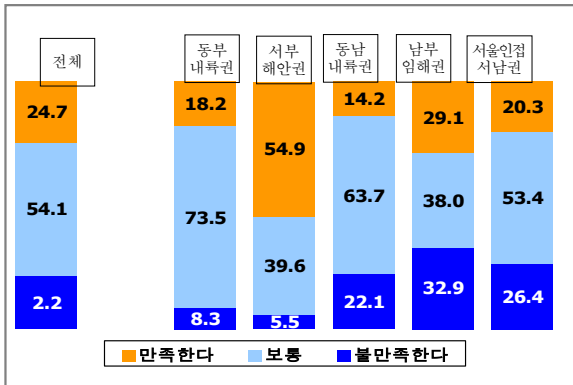
경기도지역 권역구분



<그림 1> 경기도 권역구분

경기도는 총면적이 10,184km²로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에 서쪽으로는 332km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그 중앙에는 서울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거주 환경에 따라 크게 서울인접서남권, 서부해안권, 동북내륙권, 동남내륙권, 남부임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거주하는 권역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고양, 파주 등 서부해안권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54.9%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동북내륙권(18.2%)과 동남내륙권(14.2%)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남부임해권은 만족한다는 의견이 29.1%로 높은 수준이면서 불만족한다는 의견도 32.9%로 가장 높아 지역 내 문화환경 만족도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경기도 권역별 거주자 문화환경 만족도 (%)

이처럼 지리적·문화적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의 문화환경적 특성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세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유자를 위한 문화정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관람토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형 예술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지만, 복잡한 경기도의 지역적·환경적 변수들은 단순한 문화의 민주화정책만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제의 참여도를 높이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문화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실태와 문화인식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3. 경기도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내용

1) 여가활동 실태

경기도민은 평일과 주말에 주로 TV나 비디오, 음악감상을 즐기거나 낮잠을 자는 것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다. 여가 중 독서를 하는 비율이 평일 29.9%, 주말 1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공연, 전시회, 영화 등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비율은 평일 3.3%, 주말 9.1%로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내 용	평 일(%)	주 말(%)
TV/ 비디오/음악 감상	92.2	73.0
집에서 쉼/ 낮잠	81.1	59.9
인터넷/ 게임	31.6	25.1
독서	29.9	13.4
모임/ 외식	25.7	43.0
레저/ 스포츠 활동	11.1	28.8
쇼핑	6.8	18.5
예술감상	3.3	9.1

<표 1> 주로 하는 여가활동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평일 39%, 주말 30%)과 여가시간 부족(평일 35%, 주말 21.6%)을 들었고 그 외 관련 시설 부족(주말 22.6%), 관련 프로그램 부족(주말 12.5%), 관련 정보 부족(주말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 용	평 일(%)	주 말(%)
경제적 부담	39.0	30.0
여가 시간 부족	35.0	21.6
관련 시설 부족	15.4	22.6
관련 프로그램 부족	6.7	12.5
관련 정보 부족	3.6	11.5

<표 2> 여가활동의 걸림돌

2)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률은 2002년과 비교할 때, 영화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 문화향수실태조사(2006,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영화 관람률이 9% 많고 전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17

통예술 공연과 문화행사 관람률이 적은 외에 다른 장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경기도		전국
	2002	2007	2006
영화상영	66.3	67.9	58.9
연극공연	18.9	8.3	8.1
연예공연(콘서트, 쇼)	21.4	7.5	10.0
미술전시회	23.1	6.5	6.8
클래식음악/오페라	11.6	4.0	3.6
전통예술공연	19.2	2.9	4.4
문학행사	14.4	1.2	4.4
무용공연	6.3	0.9	0.7

<표 3>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관람 지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영화의 경우 거주 시·군(51.8%)에서 관람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극공연, 미술전시회, 클래식연주회 등은 서울 등 경기도 외 지역에서 관람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서울과 문화향유권이 중첩되어 있는 경기도 문화환경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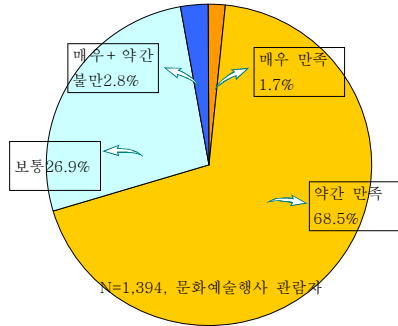
구 분	지 역		
	거주시군	도내 타시군	서울/기타 지역
영화상영	51.8	12.6	22.2
연극공연	3.1	0.7	5.2
연예공연(콘서트, 쇼)	4.3	0.4	3.5
미술전시회	2.0	0.8	4.4
클래식음악/오페라	1.2	0.7	2.5
전통예술공연	1.5	0.8	0.9
문학행사	0.6	0.2	0.5
무용공연	0.5	0.3	0.3

<표 4> 경기도내 지역별 문화행사 관람율(%)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람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 3.69점으

로 중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민은 관람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매우만족 1.7% + 약간 만족 68.5%)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만스럽다는 의견은 2.8%(매우+약간 불만)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불과 1.7%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관람비용의 적절성(61.8%), 예술 행사 내용 및 수준 (50.9%) 등이며, 문화예술행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할 점으로는 관람비용을 낮춤(58.5%), 작품의 질을 높임(47.5%)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열림 (43.2%), 보다 자주 개최(30.0%)의 순으로 응답하여 관람비용-작품의 질-접근성 등이 보완되어야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민이 문화예술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예술행사의 가장 보완되어야할 점과 일치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에서 참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

문화예술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할 점	
항목	복수응답 (%)	항목	복수응답 (%)
관람비용의 적절성	61.8	관람비용을 낮춤	58.5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50.9	작품의 질을 높임	47.5
작가, 출연진 유명도	39.7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열림	43.2
행사개최 장소 유명도	25.3	보다 자주 개최	30.0
교통의 편의성	22.2	행사 정보 폭넓게 확산	15.8
기타	-	이해하기 쉬운 행사내용 확대	4.8

<표 5>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고려사항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련 월 지출 비용은 1만원 미만 44.2%, 1만원~5만원 미만이 41.0%로 대부분 월 평균 5만원 이내에서 관람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책·잡지 구입 및 대여 (59.5%), 영화관람(44.8%), 비디오테이프/DVD 구입 및 대여 (36.3%)의 순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앞으로 지출을 희망하고 있는 항목은 영화관람(39.9%), 연극·뮤지컬 관람 (39.0%), 연예 콘서트 및 쇼관람(24.9%), 각종 전시회 관람(24.3%)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지출항목과 대비되고 있다.

향후 지출 희망항목에서 연극 및 전시회 관람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은 앞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잠재관객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항목	지출 (%)	지출 확대희망 (%)
책·잡지 구입 및 대여	59.5	12.5
영화관람	44.8	39.9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대여	36.3	36.3
음반테이프 및 CD구입	34.4	10.6
각종 전시회 관람	4.0	24.3
연예(콘서트, 쇼) 관람	2.3	24.9
연극(뮤지컬 포함) 관람	2.0	39.0
서양 고전음악회 관람	1.0	11.6
예술강좌 교육·강습비	0.7	10.9
전통음악회(국악, 민속놀이) 관람	0.5	13.0
무용 관람	0.1	4.5
없다	2.4	0.2

<표 6> 문화예술행사 관련 지출 및 지출희망 항목(복수응답)

3) 문화예술 참여·교육활동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관람비율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 반면, 문화예술 참여·교육활동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발표활동 경험은 전체의 2.8%에 불과하며 전 장르가 1%를 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향후 참여 의향은 19.6%로 매우 높아 이부분에 대한 문화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르별로는 영화(10.1%), 연극(5.8%), 연예(7.1%), 미술전시(4.4%) 등으로 문화예술을 직접 창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욕이 크나 현실적으로 경험은 적은 상황이다.

구 분	창작발표활동	
	경험(%)	창작·발표 의향(%)
창작·발표 전체	2.8	19.6
미술전시회	0.7	4.4
영화상영	0.7	10.1
전통예술공연	0.4	3.8
연극공연	0.3	5.8
무용공연	0.3	2.2
문학행사	0.2	1.5
클래식음악·오페라공연	0.2	2.9
연예(콘서트 등)공연	0.2	7.1

<표 7>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발표활동

문화예술 동호회에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19.2%였는데, 그중 레저/스포츠(11.1%)와 오락/게임(5.4%)을 제외하면 실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동호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향후 참여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도민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의 3~5배에 이르고 있어 이 또한 의미 있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동호회 활동	
	참여(%)	참여 의향(%)
참여 전체	19.2	53.2
레저/스포츠	11.1	35.4
오락/게임	5.4	10.9
생활취미활동	3.1	15.7
영화/비디오	2.4	8.4
방송/연예	1.4	5.3
미술	1.3	4.3
연극	0.9	5.2
답사	0.9	6.7

<표 8>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활동

경기도민 중 문화예술교육 강좌나 강습에 참여하여 수료한 사람은 경기도민의 4.7%로 미술 분야가 2.0%, 클래식 음악강좌 1.0%, 문학강좌 0.9%의 순으로 나타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수강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27.3%가 향후에 수료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문화예술교육 강좌 및 강습에 도민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영화, 역사 및 문화유산, 미술 분야가 7%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복합적 체험활동, 전통예술, 클래식음악 등이 5% 이상의 도민이 향후 수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문화예술교육강좌	
	수료경험(%)	수강 의향(%)
전체	4.7	27.3
미술	2.0	7.0
클래식음악, 서양음악	1.0	4.5
문학	0.9	2.8
전통예술	0.6	5.4
무용	0.5	2.0
복합적 체험활동	0.4	5.6
영화	0.4	7.9
역사 및 문화유산	0.3	7.5
연극	0.2	2.7

<표 9> 문화예술교육·강좌 참여

문화예술교육 강좌/강습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박물관,문예회관,복지회관 등 공공문화기관 수강율이 38.8%로 월등하게 높으며, 그 외 사설학원 및 강습소 17.0%,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1.4%, 기업 부설 문화센터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민이 공공문화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강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경기도내 문화시설 이용 실태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41.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경기도의 문화시설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활성화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설별로 이용률을 비교하면, 도서관의 경우 13.8%로 전국 평균 12.8%를 상회한 반면, 박물관/미술관(6.6%), 문화예술회관(5.3%) 등 주요 문화접근 시설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구 분	경기도		전국 ⁴⁾
	2002	2007	
전체		30.0	41.9
도서관(학교 제외)	27.2	13.8	12.8
시군구민회관	22.5	8.5	11.2
박물관/미술관	-	6.6	12.3
문화예술회관	-	5.3	11.3
복지회관·여성회관	9.7	4.7	7.5
청소년회관	7.4	3.3	3.6
사설문화센터	24.2	2.7	4.6
대학교부설 문화교실	4.6	1.4	1.4
문화의집	-	0.7	-
문화원	6.0	0.6	2.1

<표 10> 경기도내 문화시설 이용률(%)

4) 2006년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에 의하면, 전국의 지역문화시설 연간 이용률은 2003년 38.9%에서 2006년 41.9%로 약간 높아졌다.

경기도민의 문화시설에서 행하는 문화행사 참여율은 18.1%로 전국 평균(30.1%)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서울(25.7%), 광역시 평균(31.9%)에 못 미칠 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광역도 평균(38.3%)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의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국민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의 지역별 통계 수치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 바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문화시설의 이용률, 문화행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향후 경기도 문화정책의 우선순위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구 분	경기도	전국 ⁵⁾	서울	광역시	광역시 (경기제외)
전체	18.1	30.1	25.7	31.9	38.3
도서관(학교 제외)	5.4	5.5	4.8	4.8	7.1
시군구민회관	4.9	7.8	10.4	4.8	9.5
박물관/미술관	4.7	8.8	5.9	10.8	11.6
문화예술회관	4.2	9.9	7.7	10.9	12.5
복지회관·여성회관	2.4	5.3	3.2	2.8	8.6
청소년회관	1.8	2.4	2.6	3.2	2.2
사설문화센터	1.5	4.4	3.0	5.3	2.6
대학교부설 문화교실	0.6	1.0	0.5	0.6	2.2
문화의집	0.5	-	-	-	-
문화원	0.3	1.7	1.5	0.7	2.7

<표 11>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율(%)

5)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경기도민 중 39.1%는 문화유산을 관람한 경험이 있고 향후 78.7%가 관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역사유적지 등 고궁/사적지는 26.2%가 관람하였고 박물관 18.8%, 민속마을 13.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박물관의 관람률이 높은 것은 서울 등 경

5) 전국 및 서울, 광역시, 광역도의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율은 '2006년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관람한 비율(15.8%)이 대부분으로 실제 경기도 내 관람 비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기도 내 박물관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경기도 역사유적지 관람

구 분	문화유산 관람	
	관람률(%)	관람 의향(%)
전체	39.1	78.7
고궁/사적지	26.2	72.3
박물관	18.8	67.2
민속마을	13.6	64.1

<표 12> 경기도 역사유적지 관람

경기도에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이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31.3%) 권역별로는 서북해안권(43.9%), 동북내륙권(41.8%), 서울인접권(36.8%)이 축제 참여비율이 높은 반면, 남부임해권(21.3%), 동남내륙권(18.2%)은 축제 참여가 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축제의 보완점으로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한다'(25.0%)와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24.7%)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밖에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20.4%),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14.6%), '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7.7%)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 분	지역축제 참여	
	참여율(%)	참여 의향(%)
전체	31.3	69.3
동북내륙권	41.8	81.5
서북해안권	43.9	73.2
동남내륙권	18.2	59.4
남부임해권	21.3	64.0
서울인접권	36.8	73.1

<표 13> 경기도 지역축제 참여

6) 문화예술행사의 정보 출처

경기도민이 문화예술행사를 접하게 되는 매체는 주로 신문/잡지(45.2%) 혹은 TV/라디오(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에 비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통한 정보 습득이 18.1%에서 26.3%로 증가하였고 친구·친지를 통한 정보 습득도 16.4%에서 31.2%로 증가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10대 또는 20대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친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분	정보 출처(복수응답,%)		비고
	2002	2007	
신문/잡지	58.7	45.2	
TV/라디오	60.3	61.6	
친구·친지	16.4	31.2	10대 46.5%
안내문(포스터·전단)	31.9	30.2	
인터넷/전화서비스	18.1	26.3	10대 45.5% 20대 42.0%
공공단체/교육기관	6.0	3.3	
우편물(DM)	3.7	1.1	
동호인모임	2.0	0.4	

<표 14> 문화예술행사 정보출처

문화예술 관련 인터넷 사용 빈도는 문화예술관람을 위한 정보 취득(35.8%), 티켓 구매(29.4%) 등이 많았고 문화예술 창작·발표활동이나 동호회활동 참여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하였다.

4. 경기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이상으로 경기도민의 문화향수실태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방식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검토하여 향후 경기도의 향유자 중심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 (요약)

2007년도 경기도민의 문화향수실태는 2002년 조사에 비하여 영화를 제

외한 전 장르에서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IMF가 경제난 이후 사회 전반에 만연된 경제 중심적 사고와 기초 인문학 및 기초 예술의 경시 풍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도민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곳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 등 타 지역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경기도가 수도권으로서 독자적인 문화예술 현상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서울에 문화적으로 일부 종속되는 문화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관람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관람 비용과 작품의 질, 그리고 접근 편의성을 들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은 관람 비용을 낮추고 좀더 수준 높은 작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티켓할인제도의 확대, 우수작품 집중지원, 권역별 문화공간 활성화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문화향수실태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시사점은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참여·교육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 창작·발표활동 참여율이 2.8%이며, 동호회 참여율이 3.7%(테저/오락/스포츠 제외), 문화예술교육강좌 및 강습 수료율이 4.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경기도의 향유자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참여·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조사 내용 가운데 희망적인 것은 현재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향후 참여 의향은 문화예술활동 19.6%, 동호회 53.2%, 문화예술교육강좌 2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민은 잠재적 문화향유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은 경기도민의 문화시설 이용률 및 문화시설에서 행하는 문화행사의 참여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앞의 여러 문제점과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문화기반시설을 비롯한 문화자원이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외로 문화시설의 활용도가 낮은데,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이 문화시설의 건립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만 머물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개발과 활성화에 주력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

첫째, 경기도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아직도 경기도의 문화정책의 중심은 문화인프라 구축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관객 개발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도민들은 공공 문화시설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의 프로그램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지만, 향후에 참여 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공 문화시설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문화예술기관·시설에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적극 고용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운영요원의 전문성에 승패가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시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번 실망하게 되면,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게 된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다른 곳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문화인 출신을 고용하여 문학 실기강좌나 책읽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학큐레이터로 활용하고 박물관·미술관에는 전시큐레이터를, 그리고 공연장에는 예술감독 혹은 공연기획요원을 채용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인력 전 문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밖에 문화원이나 문화의집, 동사무소 시민자치센터 등에 문화전문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행사의 관람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예술현장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예술현장은 향유자인 도민과 창조자인 문화예술인이 작품을 통해 만나는 곳이다.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예술현장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하다. 서울의 소공연장이 밀집해있는 대학로에는 한 작품을 10년 이상 공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이들 작품이 아직도 매진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예술현장이 살아있어 관객이 물리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지만, 경기도에 대학로와 같은 '공연의 거리', 혹은 인사동·사간동과 같은 '미술의 거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서울문화권에서 벗어나 경기도 고유의 예술현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의 예술가에 대한 지원프로젝트와 전문예술단체의 육성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잠재된 관객을 개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공연의 관람료를 인하하거나 차별화하는 등의 티켓정책을 추진하고 사랑티켓제도를 활성화하며, 관객들이 문화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객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잘 짜여진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문화의 향기와 감동을 안기고 그들을 문화예술 애호가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넷째,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참여·교육활동은 매우 낮지만, 반면에 앞으로 참여 의향을 가진 잠재적 문화향유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참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는 문화의 쌍방향 소통의 시대로 개개인이 단순히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자아실현의 만족감을 얻게 된다. 아마추어 동호회의 활성화는 문화예술의 소비자 층을 두텁게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생산자들을 탄생케 하는 통로역할을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경기도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률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경기도민의 5.2%만이 경기도 문화의전당, 도립박물관, 도립미술관 등 경기도 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공공문화기관에 대한 도민의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내 공공 문화시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의 적극 활용과 더불어 문화예술 전문채널로서 케이블 또는 IPTV(Internet Protocol TV)의 운영과 도민

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UCC 콘테스트> 개최 등 디지털 환경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태계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연구조사는 지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향수실태조사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과거의 연구통계가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꾸준히 시계열 분석에 의한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문화통계센터>를 계단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최지연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현황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1998년, 2002년에 이어 올해 3번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3년 주기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로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기에 경기문화재단은 독자적으로 경기도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2007년 경기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활동 여건과 현황,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경기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한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은 모집단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모집단이 불분명한 것은 첫째, 취미나 애호가 수준의 아마추어 예술인과 전문예술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전문예술인의 범주에 대해 정의의 혹은 합의되어 있지 않다. 예술인 범주 설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이 조사뿐만 아니라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관건이 되는 과제이다.

둘째, 경기도의 문화예술인의 범주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거주지와 활동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명백히 경기도 문화예술인이라 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거주지만 경기도일 뿐 주된 활동지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인 경우도 많다. 반대로 거주지는 경기도가 아니지만 실제 활동하는 곳은 경기도인 경우도 적잖이 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 범주

1) 2007년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보고서는 2007년 12월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본 발제문은 실사 후 1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기에 최종 통계 처리 결과에 따라 일부 오차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31

의 문제는 실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셋째, 경기도 관련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적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조사대상 표본을 추출한 목록조차 형성하기 어렵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인명록이 없는 건 물론이고 수치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번 조사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원협회 및 각 시·군지부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및 각 시·군지부 회원명단, 그리고 2005-07년 경기문화재단 경기공모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에서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주소지가 경기도인 문화예술인과 주소지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이라도 경기도내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문화예술인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창작·발표가 주활동인 작가나 연희자뿐 아니라 교육, 기획, 평론, 무대기술스텝 등을 주활동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어느 단계에도 속하지 않고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문화예술인은 원칙적으로 조사 모집단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번 조사의 결과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위의 주요 단체 회원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위의 두 단체, 특히 예총은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예술단체이므로 그 회원들의 현황이 전체 예술인들의 현황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 특히 젊은 예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은 분명하다. 전체 문화예술인의 총수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문화예술인의 수와 그렇지 않은 예술인의 수를 알 수 없기에 현재의 방식에서는 알지 못하는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조사 개요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모두 8개 분야의 문화예술인이다. 조사대상자 명단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원협회 및 각 시·군지부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

합』 경기지회 및 각 시·군지부 회원 명단, 그리고 2005-07년 경기문화재단 경기공모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8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최소 100명씩 할당하여 모두 826명을 조사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07년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전문예술인
모집단	예총 경기지회(장르협회, 시군지부), 민예총 경기지회,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자
표본 크기	826 명 (8개 장르별 100명 이상)
자료 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우편/e-mail/fax/개별면접
실사 기간	2007년 10월 15일 ~ 11월 21일
조사 기관	리서치알앤에이

<표 1> 조사개요

응답자 특성	분 야	빈도(명)	퍼센트(%)
		전 체	826
문화예술 활동분야	문학	102	12.3
	미술	115	13.9
	사진	107	13.0
	건축	100	12.1
	국악	101	12.2
	음악	100	12.1
	연극	100	12.1
	무용	101	12.2
성 별	남 성	502	60.8
	여 성	324	39.2
연 령	20세 ~ 29세	92	11.1
	30세 ~ 39세	185	22.4
	40세 ~ 49세	309	37.4
	50세 ~ 59세	172	20.8
	60세 이상	68	8.2
학 력	중졸이하	19	2.3
	고졸	129	15.6
	대학재학	20	2.4
	대학졸업	327	39.6
	대학원재학	56	6.8
	석사이상	273	33.1
	무응답	2	0.2

<표 2> 응답자 특성별 분포

3. 조사 내용과 결과

1) 문화예술인 현황

조사대상의 9.5%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경기도 거주 예술인의 22.7%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을 주활동지역으로 삼는 예술인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경기도내 특정 시·군 중심 19.8%, 경기도 중심 32.0%, 전국 일대 34.8% 국내외 모두인 경우가 12.5%로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분야	경기도내 특정 시·군중심	경기도 중심	전국 일대	국내외 모두	기타	무응답
전체	19.8	32.0	34.8	12.5	0.9	0.1
문학	28.0	23.0	44.0	3.0	2.0	0.0
미술	10.0	21.0	37.0	30.0	2.0	0.0
사진	28.0	27.0	30.0	14.0	1.0	0.0
건축	14.0	23.0	50.0	13.0	0.0	0.0
국악	7.0	58.0	27.0	8.0	0.0	0.0
음악	38.0	32.0	16.0	13.0	1.0	0.0
연극	18.0	35.0	42.0	5.0	0.0	0.0
무용	15.0	37.0	32.0	14.0	1.0	1.0

<표 3>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유로는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가 35.4%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이유가 둘 다 20.5%이었다.

조사대상 문화예술인들의 89.3%가 창작/발표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 45.8%, 기획/경영활동 17.4%, 평론/이론활동 8.9%, 기타활동(무대 스템 등) 5.6%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분야	창작/발표 활동	교육 활동	기획/경영 활동	평론/이론 활동	기타 활동
전체	89.3	45.8	17.4	8.9	5.6
문학	97.0	27.0	14.0	13.0	4.0
미술	97.0	46.0	15.0	4.0	4.0
사진	100.0	32.0	9.0	7.0	1.0
건축	80.0	44.0	18.0	19.0	5.0
국악	85.0	56.0	17.0	3.0	4.0
음악	79.0	59.0	25.0	11.0	5.0
연극	92.0	34.0	26.0	6.0	18.0
무용	84.0	68.0	15.0	8.0	4.0

<표 4> 문화예술활동 성격(%)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직업 현황을 보면 전체 예술인의 1/3인 826명 중 273명이 전업작가(자유전문직)로 활동하고 있고, 문화예술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으며 가사나 취학 등으로 무직인 경우가 12.8%였다.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다수가 전업작가로 활동하는 시각예술분야와는 달리 음악이나 국악, 연극 같이 공연예술의 경우 단체를 이뤄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단체를 운영하거나 고용되어 활동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직업과 문화예술활동분야간의 일치도에 대한 응답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4.0%,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4.5%이다. 따라서 전업작가가 아닌 문화예술인 중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분야와 관계없는 조직에서 일하는 문화예술인이 1/3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문화예술인이 39.1%, 대체로 일치한다는 문화예술인은 22.6%, 반반이라는 문화예술인은 6.3%였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적으로 일치	323	39.1
대체로 일치	187	22.6
반반이다	52	6.3
대체로 일치하지 않음	37	4.5
전혀 일치하지 않음	116	14.0
비해당(무직/은퇴)	111	13.4
합계	826	100.0

<표 5> 직업과 문화예술활동분야간 일치도

작품활동이 주 수입원인 문화예술인은 22.2%이고, 강습 또는 렛슨이 20.8%, 급여가 40.8%였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작품활동	160	22.2
강습 또는 렛슨	150	20.8
급여	294	40.8
기타	112	15.6
무응답	4	0.6
합계	720	100.0

<표 6> 주 수입원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67.8%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월평균 100만 원도 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구분	문화예술활동 소득	개인전체소득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67.8	25.3	3.9
100이상-200만원미만	13.9	23.1	10.9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5.4	18.5	21.9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2.4	9.8	16.9
400만원이상	3.4	13.7	34.0
무응답	7.0	9.6	12.3

<표 7> 월평균 소득(%)

2) 문화예술활동 여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창작발표 기회가 부족하게 주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발표기회가 풍족하다는 응답은 4.5%(매우 풍족 0.4%, 풍족 4.1%), '보통'이라는 응답은 34.3%, 부족하다는 응답은 60.9%(매우 부족 13.6%, 부족 47.3%)였다.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창작발표 기회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30점(5점 만점)이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외부적 규제에 대해서는 없다고 느끼는 문화예술인이 45.2%(전혀 없다 7.1%, 없다 38.1%), '보통'으로 느끼는 경우가

2) 무직자를 제외한 응답자 수

35.6%, 심하다고 느끼는 문화예술인은 19.8%이다. 5점 척도(전혀 없다 1점, 매우 심하다 5점)로는 2.91점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보통 정도의 외부적 규제를 느끼고 있다.

경기도내 발표공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의 60.8%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매우 부족 16.7%, 부족 44.1%), 7.7%만이 풍족(매우 풍족 0.7%, 풍족 7.0%)하다고 느끼고 있다. 보통이라고 느끼는 예술인은 31.0%이다. 5점 척도로는 2.31점이었다.

창작, 연습, 집필 등을 위한 창작공간에 대해서는 더욱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술인이 68.3%(매우 부족 23.4%, 부족 44.9%), 보통은 24.4%, 풍족하다는 예술인은 6.5%(매우 풍족 0.9%, 풍족 5.6%)이었다. 5점 척도에서는 2.15점이었다.

	창작발표 기회	외부적 규제	발표공간	창작공간
전 체	2.30	2.91	2.31	2.15
2006년도 전국조사결과	2.44	1.70	-	-
문학	2.31	2.52	-	1.94
미술	2.30	2.77	1.92	1.95
사진	2.37	2.67	2.22	2.15
건축	2.44	3.16	2.42	2.46
국악	2.32	3.01	2.45	2.27
음악	2.26	3.05	2.29	2.06
연극	2.19	2.94	2.35	2.08
무용	2.21	3.17	2.49	2.30

<표 8> 창작발표 기회, 외부적 규제, 발표 및 창작공간 만족도 (5점 척도)

자택을 제외한 별도의 창작공간은 없는 경우가 24.4%이며, 별도의 창작공간이 있는 경우 정기유상임대 20.4%, 개인소유 16.3%, 공동소유 16.1% 순이다.

구 분	개인 소유	공동 소유	정기 유상 임대	부정기 유상 임대	정기 무상 임대	부정기 무상 임대	없다	기타	무응답
전 체	16.3	16.1	20.4	8.8	5.1	5.0	24.4	3.5	0.5
문학	11.0	3.0	7.0	1.0	0.0	5.0	71.0	2.0	0.0
미술	33.0	5.0	25.0	10.0	2.0	6.0	18.0	0.0	1.0
사진	12.0	16.0	5.0	11.0	7.0	7.0	40.0	2.0	0.0
건축	16.0	15.0	31.0	7.0	2.0	1.0	16.0	10.0	2.0
국악	8.0	42.0	25.0	10.0	4.0	4.0	7.0	0.0	0.0
음악	16.0	5.0	21.0	8.0	10.0	10.0	23.0	7.0	0.0
연극	9.0	19.0	32.0	13.0	10.0	3.0	13.0	0.0	1.0
무용	25.0	24.0	17.0	10.0	6.0	4.0	7.0	7.0	0.0

<표 9> 창작공간 유형(%)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85.9%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매우 낮다 46.3%, 낮다 39.6%), 12.6%는 보통 정도로, 1.1%만이 높다(매우 높다 0.1%, 높다 1.0%)고 생각하고 있다. 5점 척도로는 평균 1.67점이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72.7%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회의)를 느끼고 있다.(많이 느낀다 28.6%, 느낀다 44.1%) 느끼지 않는 문화예술인은 9.3%(전혀 느끼지 않는다 1.0%, 느끼지 않는다 8.3%)에 불과하며, 17.6%는 보통 정도로 느끼고 있었다. 5점 척도(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많이 느낀다 5점)로는 평균 3.91점이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84%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매우 부족 34.5%, 부족 49.5%)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13.9%가 보통으로, 1.8%만이 풍족(매우 풍족 0.5%, 풍족 1.3%)하다고 느끼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의 만족도 평균은 1.83점(5점 만점)이었다.

구분	경제적 보상 만족도	경제적 한계 인식	지원 만족도
경기도 전체	1.69	3.91	1.83
2006년도 전국조사결과	1.67	3.01	1.79
문학	1.36	4.02	1.70
미술	1.48	4.29	1.83
사진	1.69	3.80	1.83
건축	1.79	3.83	1.84
국악	1.90	3.62	1.94
음악	1.92	3.81	1.87
연극	1.66	3.96	1.84
무용	1.70	3.99	1.82

<표 10> 경제적 보상, 경제적 한계 인식, 문화예술인 지원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지난 1년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 수혜실적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3.5%, 지방정부(도·시·군) 32.8%, 문화예술위원회 11.9%, 기타 공공기관 7.5%, 기업 4.4%, 개인 후원자 6.9%로 나타났다.

구분	수혜실적(%)	2006년 전국조사	지원금평균(만원)
중앙정부	3.5	1.8	813.0
지방정부(도·시·군)	32.8	8.8	1,290.4
문화예술위원회	11.9	6.6	1,062.3
기타 공공기관	7.5	2.6	595.9
기업(매세나 포함)	4.4	1.9	1,249.8
개인 후원자	6.9	4.1	452.5

<표 11> 지원금 수혜 현황

문화예술활동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31.1%(매우 만족 4.5%, 만족 26/6%), 보통 31.6%, 불만족 36.9%(매우 불만족 3.6%, 불만족 33.3%)이었다.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95점이었다.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88.5%),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72.6%) 때문이다.

불만족 요인	비율(%)	만족 요인	비율(%)
사례수	303	사례수	252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	72.6	충분한 경제적 보상	0.4
예술능력에 대한 회의	13.9	능력 발휘	9.9
낮은 사회적 인식	3.0	높은 사회적 인식	1.2
외부의 간섭과 규제	5.0	좋아하는 일	88.5
기타	5.6	기타	0.0

<표 12> 불만족 및 만족 이유

3) 문화예술정책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화예술인은 51.4%, 모른다는 문화예술인은 45.1%이었다.

구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관심 없다	정책이 없다고 생각	무응답
전체	4.4	47.0	45.1	1.6	1.8	0.1
문학	3.0	59.0	35.0	1.0	2.0	0.0
미술	4.0	47.0	47.0	0.0	2.0	0.0
사진	4.0	48.0	45.0	1.0	2.0	0.0
건축	1.0	30.0	64.0	3.0	2.0	0.0
국악	7.0	48.0	41.0	3.0	1.0	0.0
음악	3.0	45.0	51.0	1.0	0.0	0.0
연극	7.0	50.0	35.0	3.0	4.0	1.0
무용	6.0	49.0	43.0	1.0	1.0	0.0

<표 13>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인지도(%)

문화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원금 부족(24.6%)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못지 않는 어려움으로 정책 전문성 부족(23.0%)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 부족(20.9%)을 지적하고 있었다.

구분	응답비율(%)
열악한 시설 수준, 시설 부족	20.9
문화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	15.6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부족	23.0
문화예술 지원금 부족	24.6
소통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부족	4.6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부족	10.4
기타	0.5
무응답	0.4

<표 14> 문화예술활동의 애로점

문화예술정책 결정에 문화예술계의 의사 반영 정도에 대해 40.5%의 문화예술인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이 51.8%,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은 6.1%였다. 문화예술계 의사 반영 정도 평균은 2.60점(5점 만점)이었다.

구분	매우 반영 안됨	거의 반영 안됨	보통이다	대체로 잘 반영	매우 잘 반영	무응답	평균
경기도	4.6	35.9	51.8	5.8	0.3	1.8	2.60
2006년도 전국조사결과	9.7	37.9	43.2	9.1	0.2	-	2.52

<표 15> 문화예술계 의사 반영 정도(%)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경제적 지원(34.1%)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원법 제정비 19.6%, 행정 전문성 15.8% 순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 문화예술계의 정실주의와 부패청산(30.8%)을 꼽고 있다.

구분	응답비율(%)
예술가(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19.6
예술가(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34.1
예술진흥 관련 정부기관의 기능 확대	4.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15.8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	2.6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8.0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	2.0
국민의 예술교육 확대 및 교육제도 개선	5.9
다른 국가와의 교류 및 홍보확대	1.0
전문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5.8
기타	0.4

<표 16>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역점과제

구분	응답비율(%)	2006년 전국조사(%)
문화예술계의 정실주의와 부패청산	30.8	29.0
과시적, 일회성 행사의 자제	14.3	14.2
문화예술작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7.6	10.1
예술경영 마인드 확산	13.9	13.9
문화산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7.0	7.5
예술교육 수준의 향상	16.9	14.2
문화예술의 세계화	3.8	4.2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선	5.8	6.7
기타	0.1	0.4

<표 17> 문화예술계 과제

4.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장르에 따른 차이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제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는 장르별 현황을 논하기 보다는 장르와 상관없이 문화예술인들의

전반적인 여건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2006년도 문화관광연구원의 전국조사와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현황이 전체 문화예술인들의 문제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도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점들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범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반이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경기도내에서만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과 밀착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심하게는 '우물 안 개구리' 격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는 모든 활동 영역이 지구화 혹은 세계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외부와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경기도민의 생활 역시 경기도 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 문화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내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활동만 접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흐름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경기도 내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 안주한다면 이는 향유자들의 외면과 끝내는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도태를 가져올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은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경기도를 넘어서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 더 나아가 국제적인 경기도 문화예술인 혹은 단체를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인(단체)의 전문성과 창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사업 공모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문화예술활동'과 '우수작품장작·발표활동' 분야로 이원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분야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층위의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작품장작·발표활동' 분야를 통해 우수한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제도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예술작품을 발굴하고 레파토리화하거나 우수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다년간 지원제도를 보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43

재단과 같은 기관이 전략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채널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국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기획 혹은 지원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지점이 경제적 측면이다. 많은 수의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의 애로점을 경제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요인도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에서 비롯하며 따라서 가장 큰 정책적 요구사항도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예술인의 2/3 이상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서 20% 가까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활동과 관계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는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는 지원금 수혜실적의 비율이 전국조사 현황에 비해 경기도가 높다는 것이다.(표 11 참조) 특히 지방정부 지원 수혜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예술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경기도 예술인들이 지원금 수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국조사 수치보다 경기도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지원수혜자는 더 많지만 개별 지원금액이 작아서 만족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는 지원정책에서 전체적인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전체적인 지원예산이 늘어나면 지원수혜자나 개별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지원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한정된 예산내에서도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 외에 민간의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공공지원 외에 민간지원은 현저하게 낮다. 미국은 공공지원의 비중이 적은 반면 민간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중심

3) 전국조사에서는 지원금액이 나오지 않아 금액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었던 유럽도 점차 정부 지원을 줄이고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간지원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도 한정된 공공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지원을 활성화하여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지원에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메세나, Arts & Business 운동,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제도, 기업 지원의 매칭 그랜트 제도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문화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유전문직 혹은 전업작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문화예술인 복지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복지 체계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같은 이러한 조사들은 조사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때 보다 더 유의미하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조사들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며, 다양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 세부 영역에서의 미시적인 차원의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인 센서스'와 같은 전수조사와 예술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일회적인 조사로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보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MEMO

MEMO

경기도의 문화, 어디에 서 있나 47

MEMO